# 한미 FTA 추가협상 시작…노동·환경이 쟁점

## ‘조항 위반때 무역보복’ 싸고 공방 예고

## 비자 쿼터·개성공단 등 역제의도 관심

한국과 미국 정부가 2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추가협상을 시작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등 한·미 양측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에서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걸친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협상은 22일까지 열린다.

미국은 이날 협상에서 제안내용을 설명했고 우리 측은 미국 측이 통보한 7개 분야의 제안들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도 파악에 나섰다.

우리측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미국 측의 제안 내용이 우리 측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기존 타결문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한다.

우리 측은 미국의 추가협의 제의에 대한 우리 측 제안 사항들을 추가협의에 대한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한 뒤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노동 분야에서 1998년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자고 제의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노동과 환경 분쟁에서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따르자고 제의했다. 이 경우 노동과 환경 분야의 협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500만달러의 벌과금이 부과하고 이 돈을 피제소국(위반국)의 노동과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돼 있는 기존 협정문과 달리 벌과금을 규정 위반국에 주거나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과거 미국 측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사례를 볼 때 협상 과정에서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의 이외의 분야에 대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우리 측은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의 항목에 대해 우리 측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제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조건을 좀더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 측은 추가협상과 이달 30일에 있을 기존 협정문에 대한 서명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추가협상이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어 추가협상이 정기 국회 개회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 등이 21일 서울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FTA 추가 협상이 시작된 21일 협상장인 외교통상부 앞에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미사일 발사 안했다”

### 軍, 첩보분석 결론

북한이 지난 19일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당국의 한 관계자는 21일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난 1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징후가 있다는 1차 첩보를 입수한 뒤 신중하게 분석했다”면서 “그러나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어제 오전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에 이어 국내 언론들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다고 보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앞서 한·미·일 군당국은 첩보장비를 통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란 징후를 사전에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군당국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 中 ‘중산층 파워’

### 자기부상열차사업·알박기 주택 철거 등

### 당국 정책에 “권익사수” 집단 행동 감행

과거 잠자코 정부정책을 추종하기만 했던 중국 도시 중산층이 이제는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두 번째 상용화를 노리던 상하이(上海)-항저우(杭州)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전격 중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과다한 투자비로 인한 수익성 저하, 철로 주변의 방사선 피폭 우려로 상하이-항저우 자기부상열차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지만 건설을 반대하는 아파트주민 수천명의 집단 탄원으로 중도하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중국 도시민들의 시위는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현상의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도시민들은 당국의 정책에 말없이 따르는 편이고 대형 시위는 지방에서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산업화와 현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신의 재산과 권익을 지키자는 의식이 도시민들 사이에서 솟아났다. 이른바 ‘중산층 파워’이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1일 중국 저장(浙江)성에서 주민 3만명이 ‘알박기’ 주택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등 중국에서 강제철거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홍콩=연합뉴스

## “원숭이 배아복제 줄기세포 추출 성공”

### 美 연구진 발표

미국 연구진이 사상 처음 원숭이의 복제배아를 만들고 이를 배양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인간의 치료복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미국 오리건 국립영장류연구소의 수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는 20일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국제줄기세포연구학회 제5차 학술회의에서 체세포핵이식(SCNT) 방법으로 붉은털 원숭이의 복제배아를 만들고 이를 배아의 초기 단계인 포배(胞胚)까지 키운 뒤 줄기세포를 채취했으며 여기서 자가증식이 가능한 2개의 줄기세포주(株)까지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복제양 돌리이후 쥐, 돼지, 암소, 개 등 각종 동물의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배아복제가 성공했지만 영장류인 원숭이의 배아복제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시도됐던 영장류의 배아복제는 모두 실패해 영장류 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미탈리포프 박사는 10살짜리 붉은털 원숭이 피부의 세포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 세포분열을 유도해 모두 20개의 복제배아를 만들어 냈으며 이 복제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에서 2개의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이를 CRES(붉은털원숭이 복제배아 줄기세포)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캔버라,뉴욕로이터·블룸버그=연합뉴스

## “美 경제에 기회” VS “車, 失이 더 크다”

### 美 청문회서 업계 대표들 한미 FTA 격론

미 정부산하 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 관련 업계 대표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FTA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FTA 발효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보험·영화 및 양돈업계와 한미재계회의, 한미FTA재계연대, 주한미상공회의소 등 단체들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반면, 자동차 및 쇠고기 업계, 환경 및 노동단체들은 현재 타결된 FTA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보완을 주장,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한미간 자동차 무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이뤄지고 있고 FTA가 이 같은 일방주의 무역구조를 고착시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소목축업자협회의 제이 H.트루이트 부사장도 아직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요구했다.

반면 한미재계회의의 로버트 C.라이스 부사장은 “한미 FTA는 미국의 제조업자와 투자가들에게 실질적이고 새로운 보호책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열렬히 지지한다”면서 “한미 FTA는 양국의 수입 및 교역장벽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美 의회 위안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가능성

일본인들이 일제 위안부 동원에 강압성이 없었다고 광고를 통해 주장한데 이어 난징대학살까지 부인하고 나섬에 따라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악화돼 하원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정보 전문지 넬슨리포트가 의회와 국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와 의회 소식통들은 난징대학살 희생자가 30만명에 달한다는 법적인 증거가 없으며 실제 사망자는 2만~3만명 가량이라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번주 보도된 뒤 난징학살 부인은 “위안부 결의안 표결을 만장일치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넬슨리포트는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밧줄이 유일한 다리** 중국 칭하이성 순화자치구 주민들이 20일 길이 200m에 이르는 줄을 타고 황하를 건너고 있다. 이 곳 근처에는 다리가 전혀 없어 주민들은 줄을 타고 황하를 건너곤 한다. /로이터=연합뉴스

#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정규직)
◉2년제이상 졸업자
◉남,녀(30세미만)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062)511-6359
H.P.017-631-4467
서울지원 TEL.02)3664-5263